자녀가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통근 변화: 코로나19 영향과 성별 차이*

강 동 우**

본 연구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11세 이하 자녀를 둔 일하는 사람들의 통근 여부와 통근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미시자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공한 '시군구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결합하여 횡단면 자료를 구축하고, 지역별 코로나19 발생 정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통근행태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코로나19는 여성의 통근 확률은 감소시켰지만 남성에는 영향이 없었다. 통근시간에 대한 영향은 성별에 관계없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교육 및 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어 자녀돌봄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성이 재택근무를 선택하여 일과 자녀돌봄을 동시에 책임졌던 경우가 남성보다 더 많았음을 시사한다.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비대면 소통의 일상화를 가져왔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경제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에서 특히 큰 고용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어린이집 등 교육 및 보육시설의 운영이 빈번히 중단되면서 자녀돌봄을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큰 유자녀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에 제약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김지연(2021)과 고영근·안태현(2022)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한

* 이 글은 손연정 외(2023), 『통근시간의 변화와 노동시장 영향』의 제4장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글의 간결성을 위해 부분적으로 인용과 분석모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dwkang1982@kli.re.kr).

국 기혼여성이 취업에서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할 확률이 남성의 경우보다 증가했고, 특히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할 확률의 증가 폭이 더 컸음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끼친 영향은 취업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자녀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은 여성의 일자리 선택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 외(2021: 97~101)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 2월 기준 취업자로 초등학교 연령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2,110명)과 남성(1,201명) 조사 대상 중에서 코로나19 이후 자녀돌봄 문제로 이직, 전직, 업종 변경을 경험한 비중은 여성(17.3%)이 남성(11.3%)보다 더 높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주당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조사 대상 대비 여성 : 32.8%, 남성 : 24.6%), 근로시간 감소가 자녀돌봄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여성(72.0%)이 남성(51.2%)보다 컸다. 이처럼 코로나19 발생은 자녀돌봄의 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남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조정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통근행태에도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자녀돌봄의 필요가 커져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로 이직할 경우, 통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근시간이 더 짧은 일자리를 선택하여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고, 돌봄시간을 확보하고자 할 수 있다. 대체로 양육이 필요한 자녀를 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통근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코로나19 발생은 특히 자녀돌봄의 부담이 큰 초등학교 연령대 이하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의 통근 여부와 통근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실증분석을 통해 코로나19가 통근행태에 끼친 영향을 직접 확인한 국내 연구는 미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11세 이하 자녀가 있어서 자녀돌봄의 부담이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통근 여부와 통근시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고, 특히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근 여부 및 통근시간 정보와 많은 표본을 이용할 수 있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미시자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공한 '시군구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결합하여 횡단면 자료를 구축하고, 지역별 코로나19 발생 정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통근행태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분석자료를 소개하고, 2010 · 2015 · 2020년 기간 동안의 통근 여부 및 통근시간 추세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코로나19와 주요 가구 및 지역 변수의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주요 시사점을 설명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Ⅱ. 분석자료

1.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통근 여부 및 통근시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 제공하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미시자료이다. 「인구주택총조사」 미시자료의 경우,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 통근 여부, 통근시간 외에도 건강상태,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원 간의 관계 등 다양한 특성을 포함한 많은 관측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가구원의 거주지역을 광역시도 수준보다 자세한 시군구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군구 수준에서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점은 코로나19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자료를 관리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구용 자료로 시군구별 집계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거주지에 기반하여 시군구 수준의 코로나19 집계값을 가구원 관측치에 결합한 후,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개인의 통근 여부와 통근시간에 끼친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실제 분석에 사용된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원 표본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육체적 제약, 정신적 제약, 지적자폐성 장애, 언어장애 등 활동 제약이 없는 25~64세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일하였음'으로 정의하고, 통근행태가 '통학함'인 경우는 제외한 후, '통근함' 또는 '통근 안 함'이라 응답한 가구원을 분석 표본으로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근 안 함'이라 응답한 표본에는 지속적으로 재택근무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시적 재택근무를 시행한 경우가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인구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 표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2. 통근 여부 및 통근시간 추세(2010 · 2015 · 2020년 비교)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통근행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경제활동 및 통근행태의 추세에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2010년, 2015년 및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분석 결과 비교를 통해 확인한다. 2010년과 2015년의 경우에도 2020년과 동일하게 활동 제약이 없고, 통학하지 않은 25~64세 가구원 표본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그림 1]에서 25~64세 전체 가구원 표본의 '일하였음' 비중을 살펴보면, 2010~2020년 기간 동안 남성은 등락은 있으나 85% 수준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일하였음'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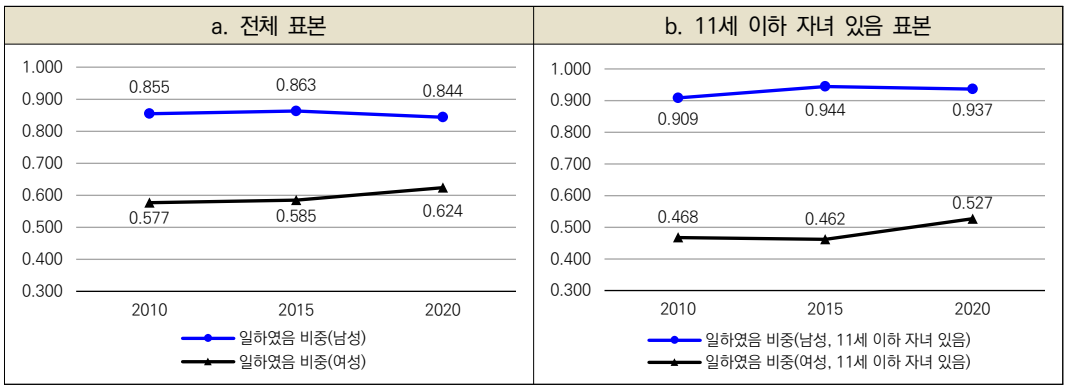
중은 작지만(약 58~62%),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구 내 만 11세 이하 자녀가 있는 표본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한 경우, 남성의 '일하였음' 비중은 전체 표본의 경우보다 더 높았지만(90% 이상), 여성은 47~53% 수준으로 낮았다. 그러나 2015~2020년 기간에 여성의 '일하였음' 비중의 증가 정도(6.5%p)는 전체 표본의 경우(3.9%p)보다 더 컸다.

'일하였음'이라 응답한 가구원 중에서 '통근함' 비중의 추세는 [그림 2]와 같다. 전체 표본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2010년과 2015년에 99% 이상의 통근 비중을 보였다. 반면 2020년에는 92~9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전체 표본에서 2010~2015년과 2015~2020년 기간의 통근 비중 변화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반면 1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2010~2015년 기간의 통근 비중 변화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으나, 2015~2020년에는 남성(3.4%p)보다 여성(7.3%p)의 통근 비중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두 그림의 비교를 통해 2015~2020년 기간에 1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통근함' 비중이 더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11세 이하 자녀가 있는 표본의 평균 통근시간(편도) 추세를 나타낸다. 왼쪽 그림은 통근하지 않은 경우의 통근시간을 0분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2010~2015년 기간에는 통근시간이 증가했으나 2015~2020년 기간에는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간에 상관없이 남성의 평균 통근시간이 여성보다 긴 것을 알 수 있는데(2010년 7.8분, 2015년 8.0분, 2020년 8.6분), 여성의 '통근함' 비중이 크게 감소한 2020년에 통근시간 차이가 특히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과 같이 통근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근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남녀 모두 2015~2020년 기간에 통근시간의 감소가 뚜렷하지 않았다. 또한 남녀 간 통근시간 차이(2010년 7.7분, 2015년 7.9분, 2020년 7.8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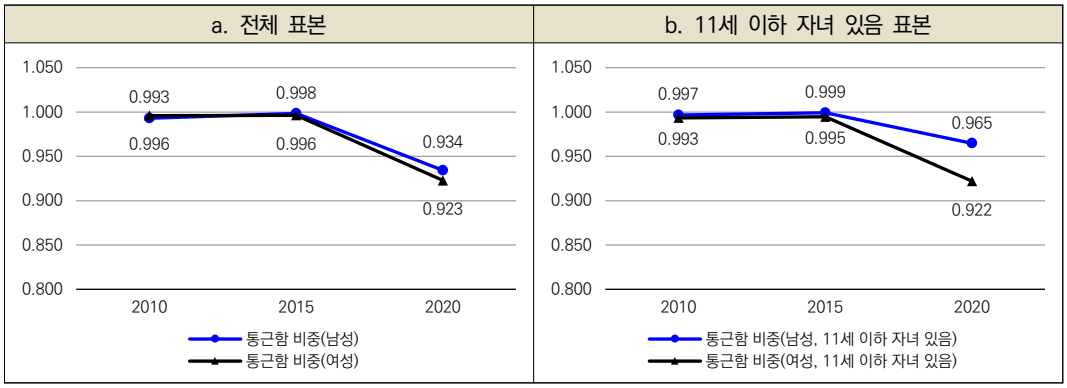
이상의 성별 통근 여부 및 통근시간 추세 변화를 종합하면, 일한 사람들 중에서 통근한 비중은 남성과 여성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하더라도 통근하지 않은 비중이 더 높았으며, 2015~2020년 기간에 여성의 '통근함' 비중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통근시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대체로 더 길었다. 남성과 여성의 통근시간 차이는 2010~2015년에 비해 2015~2020년에 차이의 정도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통근 안 함' 표본을 제외할 경우, 2015~2020년 기간의 통근시간 변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 뚜렷하지 않았다.

[그림 1] 성별 '일하였음' 비중 변화 비교



자료 : 2010년, 2015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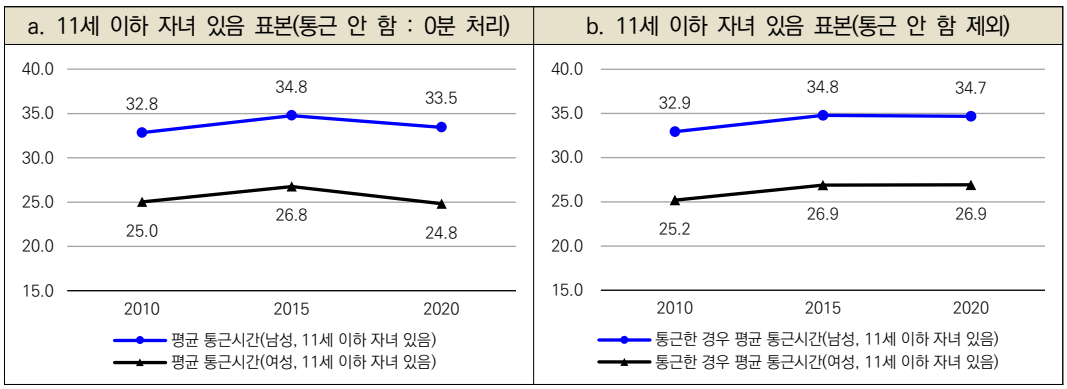
[그림 2] 성별 '통근함' 비중 변화 비교



자료 : 2010년, 2015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 저자 작성.

[그림 3] 성별 '평균 통근시간' 변화 비교

(단위 : 분)



자료 : 2010년, 2015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 저자 작성.

Ⅲ. 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통근 여부 및 통근시간 추세에서 1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일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통근 비중이 낮았으며, 특히 2015~2020년 기간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통근 비중 감소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가 특히 일하는 여성의 통근행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론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외에 통근행태에 변화를 끼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제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삶의 단계 및 라이프스타일(연령, 배우자 여부), 인적자본(학력 수준), 재택근무 가능 여부와 관련된 일자리 특성(종사상지위, 산업분류, 직업 종류)을 포함하는 개인 특성 변수와 가구[1] 및 지역[2] 수준의 특성 변수는 제외하고, 코로나19가 11세 이하 자녀가 있는 25~64세 일하는 사람들의 통근 여부와 통근시간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근 확률 및 통근시간에 대한 주요 변수별 영향은 〈표 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1. 코로나19가 통근 확률에 끼친 영향

이항 프로빗 모형(binary probit model)을 이용한 통근 결정 모형에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제외하였을 때, 11세 이하 자녀가 있는 25~64세 일하는 사람들의 통근 여부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은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했다. 평균적으로 인구 천 명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명 증가할 때 여성의 통근 확률은 0.5%p 감소하였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코로나19에 신규 감염된 지역 인구가 1%p 증가할 때, 자녀가 있고 일하는 여성이 지속적 또는 일시적 재택근무를 선택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5%p 증가함을 의미한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대부분 지역 주민이 코로나19 감염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유행은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일하는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더 많이 재택근무를 선택하

1) 가구 특성 변수에는 부양할 가족의 규모를 대리하는 '총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돌봄의 필요를 측정하는 '11세 이하 자녀 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부모 여부를 나타내는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동거하는지 여부',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나타내는 '자신을 제외한 일한 가구원이 있는지 여부', 가구의 자산 정도를 대리하는 '자가 소유 여부' 및 '주거용 연면적', 통근수단 및 시간 선택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 보유 여부'를 포함하였다.
2) 지역 특성 변수에는 관심변수인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함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공급의 대리 변수로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와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보육시설 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지역별 광역교통체계 차이를 반영하고자 '수도권 지역더미'와 '지방광역시 지역더미'를 포함하였다.

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가구 특성 변수 중에서 11세 이하 가구원 수는 여성 표본에 대해서만 통근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녀돌봄의 필요가 커질 때, 일하는 여성이 재택근무를 선택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반면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여부는 여성의 경우에만 통근 확률을 높였는데, 조부모의 도움이 일하는 여성의 돌봄 부담과 통근 선택의 제약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을 제외하고 일하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여성의 경우에만 5% 유의수준에서 통근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남성은 통근 확률이 증가하나 여성은 감소하는 추정 결과와 함께 해석하면, 맞벌이 부부 중에서 여성이 코로나19 상황 아래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재택근무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공급의 대리변수인 사설학원과 보육시설 수는 성별에 관계없이 통근 확률에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교육 및 보육시설의 운영이 빈번히 중단되었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2. 코로나19가 통근시간에 끼친 영향

다른 요인의 영향을 제외하고 코로나19가 11세 이하 자녀가 있는 25~64세 일하는 사람들의 통근시간에 끼친 영향은 토빗 모형(Tobin's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근을 한 경우(즉, 통근시간이 0분을 초과하는 표본)의 통근시간에 대한 평균적인 영향을 추정하였다.[3] 분석 결과에서 코로나19가 통근시간에 끼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근시간을 상당히 변화시키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요인들 중에서 11세 이하 가구원 수의 영향은 여성에서만 유의했는데, 11세 이하 자녀 1명의 증가는 평균적으로 통근시간을 4.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녀돌봄을 여성이 더 많이 부담하고, 돌봄 수요가 커질수록 일하는 여성은 통근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라 판단된다.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부모 동거 여부 역시 여성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통근시간을 12.2% 증가시켰다. 조부모의 도움이 자녀를 돌보며 일하는 여성에게 통근 선택뿐만 아니라 통근시간 제약을 완화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자신을 제외한 일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여성의 경우에만 통근시간이 감소하는 영향이 발견되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남성은 통근시간이 늘어나고 여성은 감소하는 추정 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맞벌이 부부 중에서 여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통근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었

3) 토빗 모형을 이용한 통근시간 분석에서는 통근하지 않은 표본(즉, 통근시간이 0분인 경우)도 포함되며, 아래 〈표 1〉의 left-censored 관측치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지역 돌봄서비스 공급의 대리변수인 사설학원과 보육시설 수의 증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및 보육시설 운영이 빈번하게 중단되어서 자녀를 두고 일하는 사람들의 통근시간 제약 완화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주요 변수별 통근 확률 및 통근시간에 대한 평균 한계효과

	통근 확률에 대한 평균 한계 효과		통근시간에 대한 평균 한계 효과	
	11세 이하 자녀가 있고 일하는 남성	11세 이하 자녀가 있고 일하는 여성	11세 이하 자녀가 있고 일하는 남성	11세 이하 자녀가 있고 일하는 여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명/천 명)	0.002	-0.005***	0.027	-0.001
11세 이하 가구원 수(명)	0.000	-0.008***	-0.009	-0.042***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부모 동거함	0.002	0.009**	0.031	0.122***
자신 제외, '일하였음' 가구원 있음	-0.005*	-0.010**	-0.029*	-0.065***
배우자 있음	0.016***	-0.022***	0.055***	-0.118***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개/천 명)	0.004	-0.001	0.061	0.049
인구 천 명당 보육시설 수(개/천 명)	0.004	-0.010	0.138	0.010
그 외 개인, 가구, 지역 특성 변수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총 관측치	48,730	29,636	48,730	29,636
left-censored 관측치			1,720	2,316

주 : *** P-value < 0.001, ** P-value < 0.05, * P-value < 0.1. 통근할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 및 log(통근시간+1)가 0보다 큰 경우에 log(통근시간+1)에 대한 한계 효과를 Delta method로 계산함. 표준오차는 17개 광역시도별 군집 표준오차를 계산함. 통근시간에 대한 평균 한계 효과 분석 결과에서 left-censored 관측치는 통근하지 않은 경우(즉, 통근시간이 0분인 경우)를 의미함.

Ⅳ. 시사점

본 연구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11세 이하 자녀를 둔 일하는 사람들의 통근 여부와 통근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미시자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공한 '시군구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결합하여 횡단면 자료를 구축하고, 지역별 코로나19 발생 정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통근행태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항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통근 결정모형 분석에서, 코로나19는 여성의 통근 확률은 감소시켰지만, 남성에 대한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에 신규 감염된 지역 인구가 1%p 증가할 때, 자녀가 있고 일하는 여성이 재택근무를 선택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5%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교육 및 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어 자녀돌봄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성이 재택근무를 선택하여 일과 자녀돌봄을 동시에 책임졌던 경우가 남성보다 더 많았음을 보여준다.

토빗 모형을 이용한 통근시간 결정모형 분석에서, 통근시간에 대한 코로나19의 유의한 영향은 성별과 관계없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근시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모형에 관계없이, 11세 이하 가구원 수와 자녀의 조부모(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부모) 동거 여부가 통근 여부 및 통근시간에 미친 영향은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11세 이하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여성의 통근 확률과 통근시간이 감소했고, 자녀의 조부모가 존재할 때는 여성의 통근 확률과 통근시간이 증가했다. 반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공급의 대리변수인 사설학원과 보육시설의 영향은 성별에 관계없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자녀돌봄의 부담이 가중될 때 주로 여성이 이를 부담했으며, 조부모의 존재가 여성의 경제활동과 자녀돌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일하는 여성의 재택근무 선택에만 영향을 준 분석 결과는 늘어난 자녀돌봄의 부담이 주로 여성의 책임으로 귀결되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교육 및 보육시설의 운영이 빈번하게 중단되었는데, 이로 인해 자녀돌봄을 가정에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자녀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발생은 여성이 자녀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여성이 취업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서 늘어난 자녀돌봄의 부담을 책임지는 경향이 남성보다 강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인식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등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근무환경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부모가 함께 자녀돌봄을 책임지는 인식 강화와 함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방식의 보편화와 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우선 이루어질 때, 사회경제적 위기 시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일과 육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사회경제적 위기 시에도 자녀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자녀의 조부모가 존재할 경우, 여성의 통근 확률과 통근시간은 증가한 반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대리변수인 사설학원과 보육시설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가중된 자녀돌봄의 부담을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보다는 주로 가정에서 책임졌음을 의미한다. 자녀의 양육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지만, 사회가 함께 양육을 분담할 때 부모의 부담 경감은 물론이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일 수 있다. 특히 인구규모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추세가 지속됨을 고려할 때, 여성과 조부모에게 특히 가중되는 자녀돌봄의 부담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나눌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또 다른 사회경제적 위기로 늘어날 수도 있는 돌봄 부담이 가정과 개인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KLI

[참고문헌]

고영근·안태현(2022), 「코로나 경제위기와 여성 고용」, 『노동경제논집』 45(1), pp.33~87.

김영란·배호중·선보영·성경·류연규(2021), 『코로나19 이후 돌봄 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지연(2021), 「코로나19 고용충격의 특이성 : 여성 고용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21-10, 한국개발연구원.

손연정·강동우·홍민기(2023), 『통근시간의 변화와 노동시장 영향』, 한국노동연구원.